

유진이와 개구리 마을 점프 점프 대모험



유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개구리 마을로 떠납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버려 헤매다가 다른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친절하 사슴이 유진이의 곁으로 다가와서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어디론가 길을 못 찾고 헤메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사슴씨!'



사슴과 함께 더 나아가다가 유진이와 사슴은 좁은 강까지 왔습니다. 유진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 걱정했어요. 하지만 용감한 곰과 물범이 도와주었어요.



강을 건너고 개구리 마을에 도착한 유진이는 귀여운 개구리와 함께 점프 점프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개구리들과 이별을 고하고 강을 건너면서 다시금 자신의 모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